

청년예술가들 현재와 가능성 탐색... 성장 고민하다

‘광주청년미술제...’ 20일부터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28명 작품 선포...포럼 진행 등
“미술생태계 안에서 새 관계와 기회 이어지길 바란다”

(사)광주미술협회(회장 이병오)는 올해 청년미술제를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無等독: 예술계, 안녕하세요’라는 타이틀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작가 28명의 작품을 소개하고, 이들이 지역 미술생태계 안에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회화와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동시대 청년예술가들이 바라보는 삶과 사회, 관계와 감정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타이틀인 ‘무등(無等)’은 높고 낮음이 나 우열을 나누지 않는다는 뜻으로, 참여 작가들의 서로 다른 감각과 조형언어를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각자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독록’은 청년작가들이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작품으로 건네는 생동감 있는 움직임의 나타내고, ‘예술씨’는 예술가와 예술의 씨앗이라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막일인 20일 오후 3시에는 청년작가

들이 작업을 지속하며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청년 예술가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는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와 천윤희 독립기획·연구자, 서주현 전남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대리, 윤하람 전남문화재단 대리 등 미술 현장과 문화예술지원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가의 성장과 경력 관리, 지원사업 활용, 예술가로서의 태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포럼의 좌장은 임영규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문화융성분과위원장이 맡는다. 임 위원장은 네 명의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작가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질문을 이끌어내고, 발제자와 참여 작가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포럼에서 먼저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는 ‘미술생태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좋은 작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주제를, 천윤희 독립기획·연구자는 ‘작업을 지속하는 힘-청년 예술가에게 건네는 세 가지 제



김하술 작 ‘자유를 찾다’

언’을, 서주현 전남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대리는 ‘청년, 예술로 살아가는 길을 함께 만들다’라는 주제를, 윤하람 전남문화재단 대리는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작가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를 각각 발제한다.

포럼 이후에는 다매인 퍼포먼스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어져 청년예술가들이 서로의 작업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시 기간에는 관람객이 작품의 배경과 작가의 이야기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여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활용한 엽서와 3D 제작 방식의 키링·마그넷 등 아트굿즈를 선보인다. 작품의 이미지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확장해 작가의 작업을 알리고, 창작활동이 새로운 유통과 수익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정승희 작 ‘너를 위한 깜짝 선물’

이다. 이번 전시에는 참여한 작가들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아트광주26’ 또한 함께 참여한다. A-21 부스에서 작품과 엽서, 키링, 마그넷, 아트소품 등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컬렉터를 직접 만난다. 전시 참여가 아트페어와 작품 유통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청년작가들이 미술시장에 진입하고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

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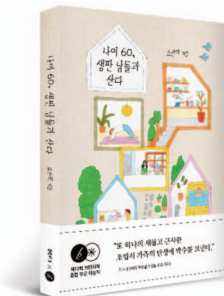
이병오 회장은 “이번 청년미술제는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함께 청년작가들이 작업을 지속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며 “청년예술가들의 질문과 가능성이 지역 미술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미로현’에 모인 네 가구 다섯 명의 삶 이야기 담는다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돌보며 나 있습니다.”

이 자문은 학연도, 혈연도, 지연도 없는 ‘무연고 우연 가족’의 탄생에 들어다 볼 수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한 가지를 고민을 하던 끝에 바로 생판 모를 남들과 집을 짓고 함께 살기로 결심한 내웅들이 그려졌다. 이 내웅으로 인해 3~4모작 좁에 나선듯한 저자. 이 저자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내린 결단의 배경을 접할 수 있는 등 제13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대상 선정작인 산문집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샘터 刊)가 나왔다. 주인공은 신문 기자에서 제주로 이주해 감귤 농사꾼이 됐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 지역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조선희씨. 저자는 피할 수 없는 노년을 혼자 힘겨워 건너기 보다 여럿이 의지하며 함께 건널 수 있는 방안을 깊이있게 모색했던 듯 싶다. 그래서 저자가 내린 결론은 바로 생판 남들과 집을 짓고 함께 살기로 한 것이



조선희 작가 ‘나이 60. 생판 남들과 산다’ 출간
노년 앞두고 가족 의미...“근사한 공동체” 상기
북토크 오늘 오후 6시30분 오월미술관에서 진행

인 통창과 대형 아일랜드 식탁이 특징인 주방, 혼자 또는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만능 공간인 살롱 등 여러 공유 공간이 합쳐진 구조다. 이곳에 사는 미로현씨들은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삶의 온기와 리듬, 갈등과 배려, 루틴까지 나누며 가족이라 하기에는 적당히 멀고, 세어 하우스라 하기에는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과 고령화로 누구나 홀로 나이 들어 갈 수 있는 시대다. 불안할 수도, 외로울 수도 있는 독거주에 공동 주택 ‘미로현’(美路軒)이라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이 집은 겉보기에는 한 채지만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 네 개의 독립 공간, 탁트

구 생활: 관계의 재발견과 집의 탄생’, ‘미로현 탐구 생활: 공간이 바꾸는 관계의 풍경’, ‘요망진 동거 생활: 지속 가능한 관계의 기술’, ‘슬기로운 어른 생활: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등 4부와 에필로그 ‘60이 넘었어도 날마다 자란다’로 구성됐다.

저자인 조선희씨는 광주 출생으로 전남여고와 고려대 사학과 졸업, 무등일보 창간기자를 거쳐 중부일보와 경인매일에서 기자로 재직했고 농사짓는 것이 꿈인 남편과 함께 1999년 서귀포시 토산리에 이주해 무농약 감귤농사를 지었다. 서귀포신문 편집국장과 제주 MBC, KCTV 제주에서 프리랜서 MC로 활동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농사를 그만두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근무, 정년퇴임했다. 저서로는 초보 농사꾼의 제주살이를 담은 ‘마흔에 밭을 일구다’와 ‘제주 바보이 이야기’가 있다.

출판 기념 광주 북토크는 19일 오후 6시30분 오월미술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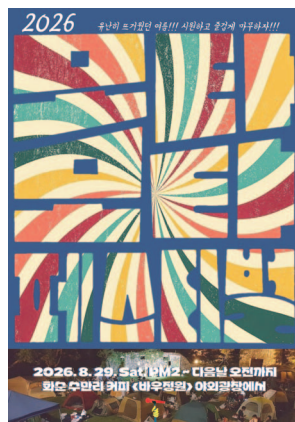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야외마당에서 피어난 무박 자생 음악회

‘모타페’ 29일 화순서 개막...우물안개구리 등 참여

전남광주 음악인들이 모인 자생적 야외 축제 ‘모타페’가 29일 오후 5시부터 20일 오전 8시까지 화순수만리커피바우정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우물안개구리, 달쌈비, 바다프로젝트, 라이언, 찌끄레게, 건로 등 지역에서



관객들도 하루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며 광주 인디 음악의 느슨하고 다정한 흐름을 경험하게 된다.

모타페 관계자는 “광주에서 음악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계획을 짜고, 준비물을 챙긴다. 각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 나누며 하루를 꼬박 함께하는 페스티벌”이라며 “가도 되나 망설이는 분들이 꼭 오시면 좋겠다. 공연하고 싶은 동료들의 연락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이 조금 힘들지만 그것만 이겨내면 즐거울 것”이라며 “어떤 이에게는 기대 이상, 어떤 이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함께 모여 더위를 식히는 음악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소장품 공개 구입

문화전당, 내일부터 서남아시아 유물 매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20일부터 9월 4일까지 서남아시아 관련 유물의 매도 신청을 받는다.

ACC가 지난 2017년 설립한 1종 전문 박물관인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아시아 문화와 관련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품은 아시아 28개국 1만5000여점에 달한다. 아시아문화박물관은 소장품의 지역적·주제별 편중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집 계획을 수립해 올해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소장품을 중점적으로 확보에 나선다.

이에 올해 수집 사업은 튀르키예, 요르

단, 이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속한 서아시아와 인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권역이 대상이다. 구입 대상 유물은 서·남 아시아 지역의 전통문화를 비롯해 전통 의복, 음식문화, 공연, 공예, 종교, 건축 등과 관련한 것이다.

자료의 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우선 구입하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소장자와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자료,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구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구입 자료 심의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의해 자료 구입을 결정하



상설전 ‘문순으로 열린 세계’ 전경.

며, 구입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자료 매매 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이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으로 이전된다.

구입한 유물은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관리·보존하며, 전시와 연구를 비롯한 교육, 홍보, 창제 등 ACC의 문화사업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매도 신청서와 유물 사진이 포함된 자료 명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ACC 기증 담당자의 전자우편(islescop@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 등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

나홍진 ‘호프’, 홍콩 여름 국제영화제 개막작

19일 관객과 인사...20일엔 ‘곡성’ 상영 후 마스터클래스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홍콩 여름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주홍공한국문화원은 19~31일 열리는 ‘2026 홍콩 여름 국제영화제’에서 ‘호프’가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주홍공한국문화원은 영화제 파트너로 참여해 ‘호프’ 상영과 나 감독의 마스터클래스 개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호프’는 19일 홍콩 프리미어 엘리먼츠 극장에서 두 차례 상영된다. 나 감독은 이날 상영관을 찾아 관객과 만난다.

나 감독은 20일에도 엘리먼츠 극장에서 자신의 전작 ‘곡성’을 상영한 후 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한다. 나 감독의 주요 작품과 연출 세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영화제에서는 ‘홍상수 감독 초기작 특별전’(Zoom In Zoom Out Hong Sang-soo)도 진행된다. 특별전에선 홍 감독의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비롯해 ‘강원도의 힘’, ‘극장전’, ‘옥희의 영화’, ‘우리 선화’ 등 10편을 상영한다. 연합뉴스